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고 광 명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연구교수)

[目 次]

| | |
|----------------|----------|
| I. 머리말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맺음말 |
| III. 연구대상 및 방법 | |

I. 머리말

2007년도 入管協會가 발표한 在留外國人統計에 따르면 일본 속의 전체 외국인 인구는 2,084,919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아시아출신 인구는 한국·조선 598,219명(28.7%), 중국 560,741명(26.9%), 필리핀 193,488명(9.3%) 등을 포함한 1,540,764명에 달하였다. 현재 재일(在日)한인 인구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재일 제주인은 97,651명으로 전체의 약 16.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칸토(關東)지역에 26,983명(27.6%), 칸사이(關西)지역에 64,000명(65.5%)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2개 지역의 재일제주인 수가 전체 97,651명 가운데 90,983명으로 93.1%를 차지하고 있다.¹⁾

재일제주인은 일제강점기에 징용, 징병 등 강제적으로 이주(involuntary emigration)되거나 1945년 광복 이후 4·3사건과 전쟁을 피해, 그리고 출가해녀(出稼海女) 등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도쿄(東京) 미카와시마(三河島)나 오사카(大阪) 이쿠노구(生野區) 등의 대도시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재일제주인의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칸사이지역에 많이 거주한 것은 오사카와 코베(神戸)를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에서 직공 모집이 많아 취업이 비교적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22년 10월 제주~오사카 간의 기미가요마루(君代丸) 등 직항로가 취항하면서 일본과의 왕래가 쉬운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5-B00012).

1) 入管協會(2007), 『在留外國人統計』, pp.98~99.

지역이라는 점도 작용하였다.²⁾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 이주(spontaneous emigration)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재일제주인은 사회·문화적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항상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여 왔다. 결국 한민족 디아스포라(Diaspora)³⁾ 국가 중 재일한인(재일제주인 등)의 일본 이주가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정착과정이었다고 한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에서 불합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영위하고자 문중, 마을, 학교 등 여러 형태의 친목단체인 비공식조직(informal organization)을 형성하면서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지속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이유는 일본사회 속에서 정신적 지주와 애향심, 그리고 상호간 인적교류를 통해 제주인의 삶을 위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이주 초기부터 자본이나 기술을 가지고 이주하였다기보다는 단순 노동력을 가지고 일본의 저임금 단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전통이 남아있어 양곡 판매점, 잡화상, 공장노동을 통해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고무, 유리 관련 가내수공업과 봉제업에 종사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共同新聞社(1989)가 재일한인 기업가를 수록한 『在日韓國人實業名鑑』 자료 등을 통하여 고향에 애향심을 표현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과제를 설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단일민족 사상을 고수해 온 일본정부가 국내의 인구통계나 경제통계를 민족이나 민족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일코리안의 경영활동이나 경제활동 등은 공식통계를 통해 분석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재일제주인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연구대상 및 방법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재일제주인의 경영활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신행철(2004),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학교출판부, pp.464~465.

3) 디아스포라(Diaspora)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아니다. 우리말로는 민족이산(民族離散)으로 번역되는데, 단지 같은 민족구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분산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어원적으로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 전치사 dia(영어로 over, 우리말로 ~를 넘어)와 동사 spero(영어로 to sow, 우리말로 뿌리다)에서 유래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윤인진(2005),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pp.4~5.

4) 金泰永(2005),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특성과 기업가정신”, 『日本文化學報』 제27집, 韓國日本文化學會, pp.1~26.

II. 이론적 배경

1. 재일제주인의 의미

재일제주인의 의미란 '재일동포(在日同胞)'의 개념을 원용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일시 체류, 영주권자, 유학, 2·3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제주출신 재일동포, 제주출신 재일교포, 재일 제주출신자, 제주출신 재외교민(교민사회) 등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재일(在日)'을 규정하는 것이 국가시스템에 따른 한국이나 조선(북한)이라는 국적 표시인지, 또는 우리와 같은 혈통인지, 또는 역사나 문화에 얽힌 의식인지, 나아가서 재일한인의 권리획득을 위해 싸우는 존재인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⁵⁾

현재 재일제주인의 놓여져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한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다른 본적지 출신자에 비해 강한 지역성을 표출하는 이중구조(二重構造) 성격을 지니고 있다. 1925년 이쿠노구(生野區)에는 다른 지역출신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재일제주인은 이들로부터 '섬놈'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폭력과 멸시를 당하는 이중적 차별을 일본사회에서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출신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저력으로 지금의 재일제주인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⁶⁾

둘째, 재일제주인은 일본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제주문화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한 이면성(裏面性)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제주문화를 의식하고 간직하기보다는 일본문화에 흡수되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원인은 해방 이후 6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민족의식과 가치관, 생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민족교육을 받는 재일동포 자녀가 격감하는 중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한인이 증가하고, 제주도와외의 인적교류가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일한인을 포함한 재일제주인은 바야흐로 국적이냐 혈연, 의식 상태나 문화, 그리고 세대교체 등의 측면에서 매우 복잡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들로 형성되어 도(道) 단위보다는 마을(洞·里) 단위의 공동체적(共同體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의 마을 단위별로 구성된 친목조직이 활성화된 것도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생활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본래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

5) 尹健次(2002),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pp.285~315.

6) 신행철(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島研究』 제14집, 濟州學會, p.70.

는 상호부조와 친목도모의 기제(基劑)로써 활용되어 재일제주인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발휘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⁷⁾

넷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동일한 입장의 재일동포 중에서 결혼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가치체계의 양면성(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출신자가 일본사회 속에서 생활하여 온 타 지역 출신자와의 교류가 있으면서 일본인보다는 가치체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수용하려고 했다. 또한 제주도 출신자 속에서도 2·3세는 소위 재일한인으로서 타 지역 출신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본국의 유교적 사고를 흡수하여 개념화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제주도의 생활양식이 전달되어 가부장제적(家父長制的) 사고가 강하지 않아 결혼하면 부모와 따로 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⁸⁾

따라서 재일제주인 1세는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 피와 땀으로 재일제주인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2세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재일제주인 사회를 보다 공고하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재일제주인 3세도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으로서 일본사회에서 그들이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일제주인 사회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일한인 기업가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쿠다(奥田道大, 2003)는 아시아인 연구에서 한국인 뉴커머를 점착적 적응(adhesive adapt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핵심부분에서 자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주변부분에서는 점착적(漸次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문화(異文化) 환경에의 적응자세를 자각적·자의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본사회에서 보면 한인이 적극적인 적응, 동화 자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 자긍심, 전통문화 등 한인 자신의 특성이 중심에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⁹⁾ 高鮮徽(1998)는 일본의 4대 집합장소의 하나인 요코하마(横浜)시 A지역의 간이숙박소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관계를 조사했다. A지역에는 1988년경부터 한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되면서 제주도 출신자 중에서도 K읍 출신자가 많았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재일한인에게 취직을 의뢰하는 관계가

7) 제주발전연구원(2000), 『100만 제주인의 사회적 통합증진과 역량 극대화 방안 연구』, pp.15~16.

8) 高鮮徽(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關東地方を中心に』, 新幹社, p.138.

9) 奥田道大(1993), 『都市と地域の文脈を求めて—21世紀システムとしての都市社會學』, 有信堂高文社.

소멸하는 대신에 노동수요에 관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K읍에서 제주도로, 그리고 한인 모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¹⁰⁾ 이것은 이민과정에서 지금까지 한인들이 의지해 왔던 혈연이나 지연 네트워크 대신에 도일 후의 친구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지마(田嶋淳子, 1998)는 신주쿠(新宿) 오쿠보(大久保)지역의 한국인 뉴커머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에스닉 기업과 기업가의 변성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민족 네트워크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에스닉 기업가 층의 형성은 종교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뉴커머의 접점을 다양하게 하고, 또한 유학생이 주재원으로 이행하거나 일본 외국계 기업에의 취직을 매개로 하여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¹¹⁾ 이러한 뉴커머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는 이주자와 그 가족, 한국계 일본인의 존재 등 종래의 재일한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포함시키면서 일본사회와의 접점이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생각할 수 있다. 임채완 외(2007)는 재일한인 기업가 및 기업의 특징을 기술하면서 재일한인 기업의 네트워크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재일한인들이 조직화하여 형성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사례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¹²⁾

한편 지금까지 재일한인의 경영활동이나 기업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徐龍達(1982)은 재일한인상공인을 중심으로 동경청년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는 개별방문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경영자 비율이 684명(62%)이었으며, 연령별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업종별은 제조업, 음식업, 유기·오락업, 금융·부동산 순으로 나타났다.¹³⁾ 李光奎(1982)는 도쿄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상공인(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도쿄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상공인들은 30대 이상이 가장 많고, 음식업, 유기·오락업, 금융·부동산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며, 도시에 거주하고 겸업이 적고, 단독업종에 충실하며 영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徐龍達(1987)은 재일코리안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며 한국인상공회가 존재하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을 포함한 10곳의 상공인 조직을 동원하여 소속회원 수나 업종 분포, 지역산업의 업종 및 회원의 고민거리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재일코리안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업종분포에 따른 지역간 특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¹⁵⁾ 또한 徐龍達(1989)은 도쿄 중심의 조사에서 업종별 분포를

10) 高鮮徽(1998), 『20世紀の滞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明石書店.

11) 田嶋淳子(1998), 『世界都市・東京のアジア系移住者』, 學文社.

12) 임채완 외(2007),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북코리아.

13) 徐龍達(1982),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事態について』, 東京韓國青年商工會.

14) 李光奎(1982),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事態』, 東京韓國青年商工會.

15) 徐龍達編(1987), 『韓國・朝鮮人の現状と將來』, 社會評論社.

보면 제조업 21.3%, 서비스업 18.3%, 음식업 17.6%, 기타 서비스업 9.1%, 도·소매업 8.2%, 건설업 7.2%, 금융업 7.0%로 오사카 조사와 비교하여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의 구성비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¹⁶⁾ 吳圭祥(1992)은 '재일조선인 기업활동 형성사'에서 해방 이후 일본에서 재일코리안 상공인들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에 대해 재일코리안의 역사,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장사나 기업활동의 흐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재일코리안 기업의 형성사를 고찰함으로써 재일코리안 문제, 특히 상공인들의 기업활동 분석과 연구에 큰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¹⁷⁾

姜誠(1996)은 일본 전국의 파친코 점포 수는 1만 8,244개(1995년 12월)이지만, 한개 업자가 복수의 법인 또는 개인명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파친코 수는 6,000개~8,000개로 추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재일코리안이 파친코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로서 국적차별에 의한 취직차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위신이 낮아 일본기업이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3D 업종이나 틈새시장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¹⁸⁾ 辺眞一(2000)은 재일코리안들이 특히 경제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재일코리안들이 야키니쿠와 파친코와 같이 일본사회의 주변산업에서 차별받고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인보다 앞서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재일코리안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일코리안들이 일본인들보다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다.¹⁹⁾ 金美德(2002)은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자가 많고 경영자원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면승부보다는 틈새나 기습전법, 또는 상식과괴 등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왔다고 분석하면서 향후 기업가들이 정면돌파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기업의 경영, 발상·창조, 기술개발을 해나가지 않으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⁰⁾ 朴健市(2002)는 재일코리안 기업 중에 파친코산업이 가장 주요한 산업이라고 주장하였다. 파친코 점포뿐만 아니라 파친코 대(臺)를 만드는 파친코 제조메이커 또한 거대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며, 파친코 메이커의 약 70% 이상이 재일코리안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池東旭(2002)에 의하면 재일코리안들은 파친코 등의 유기업, 고리대금융을 포함한 금융업, 부동산업, 그리고 음식업 등 3대 업종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²²⁾ 朴一(2002)은 재일코리안의 역사, 법적지위, 민족교육, 정체성 등에 관한 문헌이 다양한 분야에

16) 徐龍達(1989),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事態』, 青商連合會.

17) 吳圭祥(1992), 『在日朝鮮人企業活動形成史』, 雄山閣.

18) 姜誠(1996), 『5グラムの攻防戦—パチンコ30兆円産業の光と影』, 集英社.

19) 辺眞一(2000), 『強者としての在日』, ザ・マサダ.

20) 金美德(2002), "日本のベンチャー企業と在日コリアン企業の比較研究", 『同胞經濟研究』 第5号(夏),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

21) 朴健市(2002), "燒肉産業と在日同胞", 『韓商連四十年史』, 在日韓國商工會議所.

22) 池東旭(2002), 『コリアンジャパニーズ』, 角川書店.

서 대량 출판되는데, 재일코리안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서 일본관청의 공식통계에는 서구유럽과 같은 이민기업이나 이민노동자에 대한 통계가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²³⁾ 吳民學·金哲秀(2002)는 일본 통계청 국제조사보고를 이용하여 재일코리안의 상공인 수와 취업자 수를 추측하였다. 그리고 재일코리안의 취업자별 인구를 산업별, 고용형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재일코리안 사회의 산업구조와 주력업종을 파악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그들은 일본 국제조사의 제한된 통계를 이용하여 재일코리안 상공인 수와 취업자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²⁴⁾ 河明生(2003)에 따르면 재일코리안은 일본사회에서 공직에 취업할 수 없으므로 영리활동 이외에는 자기실현 방법이 없었다. 그들 중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과 경제적 상승에 대한 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영리활동에 의해 자기실현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들은 영리활동에 있어서 일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탁월성을 발휘하였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²⁵⁾ 外村俊幸(2003)는 인구조사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재일한인들의 인구변화와 직업별 인구분포, 고용 및 실업률, 그리고 고용형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내에서 재일한인들의 경제적 지위와 역할 등을 파악하였다.²⁶⁾ 최석신 외(2005)는 주로 문헌조사와 일본 현지에서의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일코리안의 소비패턴과 소득규모, 산업구조, 주력업종, 그리고 한국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재일코리안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경제 환경과 실태를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였다.²⁷⁾

따라서 이상의 기존연구를 종합하면 재일한인 기업가와 관련하여 재일한인의 경영활동 등의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출신과 대비되는 재일제주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경영활동을 고찰하여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23) 朴一(2002), 『在日コリアンの經濟事情』, 第11卷.

24) 吳民學·金哲秀(2002), “統計に見る在日朝鮮商工人數に關する研究”, 『同胞經濟研究』 第6号,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

25) 河明生(2003), 『マイノリティの起業家精神：在日韓人事例研究』, ITA.

26) 外村俊幸(2003), 『在日韓國人の經濟的地位と役割』, 國際經濟研究所.

27) 崔석신 외(2005), 『재일코리안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共同新聞社(1989)가 재일한인 기업가를 수록한 『在日韓國人實業名鑑』 자료를 기본적인 원 자료(raw data)로 하고 있다. 이 자료에 수록된 기업가는 약 2,500명(大阪府 약 1,500명, 京都府 약 400명, 兵庫縣 약 6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기업가 가운데 일본사회에서 기업가활동을 수행한 제주도 출신자 기업가 562명(大阪府 523명, 京都府 8명, 兵庫縣 31명)을 우선 추출한 후, 모든 항목에서 자료 내용이 양호한 90명(大阪府 87명, 兵庫縣 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본고에서 이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첫째, 1910년 이전부터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주요 재일제주인 기업가가 거의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적 배경을 시계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일제주인 기업가(90명)를 조사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시기별로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본특성으로서 추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별 내용이 개인적 배경을 포함한 출생년도, 출신지역, 학력, 업종, 설립년도,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 수 등 기업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의 조사 자료는 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8가지 표본특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우선 기입하고, 이에 근거하여 명목척도로 측정된 자료임을 밝혀 둔다.

2. 연구방법

본 자료는 원래 재일제주인 기업가(90명) 조사를 통해 얻은 내용을 Data Sheet로 전기하여 각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재일제주인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 수치와 같은 기본정보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의 자료에 수록된 모든 경영활동과 관련한 수치를 M/S Excel 프로그램에 Coding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목록자료를 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90명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 출생년도, 출신지역, 학력, 업종, 설립시기,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 수 등 기업가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0.0 version이고, 사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 tab)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의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45년 이전부터

1989년까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주요 기업가를 대상으로 8가지 항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 출생년도인 경우는 1938년 이전과 1938년 이후와 같이 2가지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가의 출생 시기를 구분한 것은 시대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② 출신지역인 경우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과 같은 4개 항목을 갖는 명목적으로 변환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을 4개의 카테고리 묶은 이유는 당시 기업가의 출신지역을 감안하여 1946년 도제(道制)실시 이후 4개 지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③ 학력인 경우는 본래 중졸, 고졸, 대졸, 불명과 같이 4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④ 업종인 경우는 건설, 제조, 상사·도매업, 소매·판매, 금융·증권·보험, 부동산, 운수, 정보서비스, 기타(다 업종)와 같이 10가지로 구분하였다. ⑤ 설립시기는 1950년 이전, 1960년~1969년, 1970년 이후와 같이 3개로 구분하였다. ⑥ 자본금인 경우는 500만 엔 이하, 500만 엔~1,999만 엔, 2,000만 엔 이상과 같이 3개로 구분하였다. ⑦ 매출액인 경우는 2.25억 엔 이하, 2.26~5억 엔, 5.01~15억 엔, 15.1억 엔 이상과 같이 4개로 구분하였다. ⑧ 종업원 수인 경우는 50명 이하와 51명 이상과 같이 2개로 구분하였다.

IV. 연구결과

1. 표본특성

<표 1>에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표본특성을 보면, 출생년도는 1938년 이전이 50명(55.6%), 1939년 이후가 40명(44.4%)이며, 출생지역은 북제주군이 38명(42.1%)으로 가장 많고, 제주시 25명(27.8%), 남제주군 14명(15.4%), 서귀포시 13명(14.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33명(36.7%), 대졸 27명(30.0%)이며, 불명인 경우도 29명(32.2%)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제조업이 48명(53.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사·도매 9명(10.0%), 부동산 9명(8.9%), 정보서비스 9명(8.9%)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시기는 1970년 이후가 36명(40.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60년~1969년 29명(32.2%), 1950년 이전 25명(27.8%)으로 나타났다. 설립자본금은 500만 엔 이하 32명(35.6%), 2,000만 엔 이상 31명(34.4%), 500만 엔~1,999만 엔 27명(3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2.26억~5억 엔 26명(27.8%), 2.25억 엔 이하와 5.01억~15억 엔이 각각 22명(24.4%), 15.1억 엔 이상 21명(23.3%)으로 나타났고, 종업원 수는 50명 이하가 73명(81.1%), 51명 이상 17명(18.9%)으로 나타났다.

<표 1> 제일제주인 기업가의 표본 특성

(단위 : 명, %)

| 내용 | 항목 | N | 빈도 | 내용 | 항목 | N | 빈도 |
|------|----------|----|------|-------|-------------|----|------|
| 출생년도 | 1938년 이전 | 50 | 55.6 | 업종 | 운수 | 2 | 2.2 |
| | 1939년 이후 | 40 | 44.4 | | 정보서비스 | 8 | 8.9 |
| 출생지역 | 제주시 | 25 | 27.8 | | 기타(다 업종) | 6 | 6.6 |
| | 서귀포시 | 13 | 14.4 | 설립시기 | 1959년 이전 | 25 | 27.8 |
| | 북제주군 | 38 | 42.1 | | 1960년~1969년 | 29 | 32.2 |
| | 남제주군 | 14 | 15.4 | | 1970년 이후 | 36 | 40.0 |
| 학력 | 중졸 | 1 | 1.1 | 자본금 | 500만 엔 이하 | 32 | 35.6 |
| | 고졸 | 33 | 36.7 | | 500~1,999만엔 | 27 | 30.0 |
| | 대졸 | 27 | 30.0 | | 2,000만엔 이상 | 31 | 34.4 |
| | 불명 | 29 | 32.2 | 매출액 | 2.25억 엔 이하 | 22 | 24.4 |
| 업종 | 건설 | 2 | 2.2 | | 2.26~5억 엔 | 25 | 27.8 |
| | 제조 | 48 | 53.3 | | 5.01~15억 엔 | 22 | 24.4 |
| | 상사·도매 | 9 | 10.0 | | 15.1억 엔 이상 | 21 | 23.3 |
| | 소매·판매 | 4 | 4.4 | 종업원 수 | 50명 이하 | 73 | 81.1 |
| | 금융 | 3 | 3.3 | | 51명 이상 | 17 | 18.9 |
| | 부동산 | 8 | 8.9 | | | | |

2. 제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1) 출생년도와 설립시기

<표 2>에서 출생년도에 따른 설립시기 분포를 보면, 1938년 이전 출생한 경우는 1959년 이전 16명, 1960년~1969년 19명, 1970년 이후 15명으로 나타났고, 1939년 이후인 경우는 1959년 이전 9명, 1960년~1969년 10명, 1970년 이후 21명으로 나타났다.

<표 2> 출생년도·설립시기 분포

| 구분 | 설립시기 | | | F(p) |
|------|----------|------------|----------|------------------|
| | 1959년 이전 | 1960~1969년 | 1970년 이후 | |
| 출생년도 | 1938년 이전 | 16 | 19 | 4.700 (0.095) |
| | 1939년 이후 | 9 | 10 | |

주 : * p<0.1, ** p<0.05, *** p<0.01

2) 설립시기와 자본금

<표 3>에서 설립시기에 따른 자본금 분포를 보면, 1959년 이전인 경우는 500만 엔 이하

3명, 501억~1,999만 엔 6명, 2,000만 엔 이상 16명으로 나타났고, 1960년~1969년 경우도 500만 엔 이하 10명, 501억~1,999만 엔 11명, 2,000만 엔 이상 8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 이후인 경우는 500만 엔 이하 19명, 501억~1,999만 엔 10명, 2,000만 엔 이상 7명으로 나타났다.

<표 3> 설립시기 · 자본금 분포

| 구분 | 자본금 | | | F(p) |
|------|------------|--------------|-------------|-------------------|
| | 500만 엔 이하 | 501~1,999만 엔 | 2,000만 엔 이상 | |
| 설립시기 | 1959년 이전 | 3 | 6 | 16 |
| | 1960~1969년 | 10 | 11 | 8 |
| | 1970년 이후 | 19 | 10 | 7 |
| | | | | 16.969 (0.002) |

주 : * p<0.1, ** p<0.05, *** p<0.01

3) 설립시기와 매출액

<표 4>에서 설립시기에 따른 매출액 분포를 보면, 1959년 이전인 경우는 2.25억 엔 이하 2명, 2.26억~5억 엔 6명, 5.01억~15억 엔 5명, 15.1억 엔 이상 12명으로 나타났고, 1960년~1969년 경우도 2.25억 엔 이하 8명, 2.26억~5억 엔 10명, 5.01억~15억 엔 7명, 15.1억 엔 이상 4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 이후인 경우는 2.25억 엔 이하 12명, 2.26억~5억 엔 9명, 5.01억~15억 엔 10명, 15.1억 엔 이상 5명으로 나타났다.

<표 4> 설립시기 · 매출액 분포

(단위 : 억 엔)

| 구분 | 매출액 | | | | F(p) |
|------|------------|---------|----------|-------------------|------|
| | 2.25억 이하 | 2.26~5억 | 5.01~15억 | 15.1억 이상 | |
| 설립시기 | 1959년 이전 | 2 | 6 | 5 | 12 |
| | 1960~1969년 | 8 | 10 | 7 | 4 |
| | 1970년 이후 | 12 | 9 | 10 | 5 |
| | | | | 14.137 (0.028) | |

주 : * p<0.1, ** p<0.05, *** p<0.01

4) 설립시기와 종업원 수

<표 5>에서 설립시기에 따른 종업원 수 분포를 보면, 1959년 이전인 경우는 50명 이하 14명, 50명 이상 11명으로 나타났고, 1960년~1969년 경우도 50명 이하 25명, 50명 이상 4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 이후인 경우는 50명 이하 34명, 50명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표 5> 설립시기 · 종업원 수 분포

| 구분 | | 종업원 수 | | F(p) |
|------|------------|--------|--------|-------------------|
| | | 50명 이하 | 51명 이상 | |
| 설립시기 | 1959년 이전 | 14 | 11 | 14.958 (0.001) |
| | 1960~1969년 | 25 | 4 | |
| | 1970년 이후 | 34 | 2 | |

주 : * p<0.1, ** p<0.05, *** p<0.01

5) 자본금과 매출액

<표 6>에서 자본금에 따른 매출액 분포를 보면, 500만 엔 이하인 경우는 2.25억 엔 이하 14명, 2.26억~5억 엔 8명, 5.01억~15억 엔 5명, 15.1억 엔 이상 5명으로 나타났고, 501만~1,999만 엔인 경우는 2.25억 엔 이하 5명, 2.26억~5억 엔 12명, 5.01억~15억 엔 7명, 15.1억 엔 이상 3명으로 나타났다. 2,000만 엔 이상인 경우는 2.25억 엔 이하 3명, 2.26억~5억 엔 5명, 5.01억~15억 엔 10명, 15.1억 엔 이상 13명으로 나타났다.

<표 6> 자본금 · 매출액 분포

(단위 : 만, 억 엔)

| 구분 | | 매출액 | | | | F(p) |
|-----|------------|----------|---------|----------|----------|-------------------|
| | | 2.25억 이하 | 2.26~5억 | 5.01~15억 | 15.1억 이상 | |
| 자본금 | 500만 이하 | 14 | 8 | 5 | 5 | 21.293 (0.002) |
| | 501~1,999만 | 5 | 12 | 7 | 3 | |
| | 2,000만 이상 | 3 | 5 | 10 | 13 | |

주 : * p<0.1, ** p<0.05, *** p<0.01

6) 자본금과 종업원 수

<표 7>에서 자본금에 따른 종업원 수 분포를 보면, 500만 엔 이하인 경우는 50명 이하 30명, 50명 이상 2명으로 나타났고, 501만 엔~1,999만 엔인 경우는 50명 이상 26명, 51명 이상 1명으로 나타났다. 2,000만 엔 이상인 경우는 50명 이하 17명, 51명 이상 14명으로 나타났다.

<표 7> 자본금·종업원 수 분포

| 구분 | | 종업원 수 | | F(p) |
|-----|--------------|--------|--------|-------------------|
| | | 50명 이하 | 51명 이상 | |
| 자본금 | 500만 엔 이하 | 30 | 2 | 21.366 (0.000) |
| | 501~1,999만 엔 | 26 | 1 | |
| | 2,000만 엔 이상 | 17 | 14 | |

주 : * p<0.1, ** p<0.05, *** p<0.01

7) 매출액과 종업원 수

<표 8>에서 매출액에 따른 종업원 수 분포를 보면, 2.25억 엔 이하인 경우는 50명 이하 22명으로 나타났고, 2.26억~5억 엔인 경우는 50명 이하 24명, 51명 이상 1명으로 나타났다. 5.01억~15억 엔인 경우는 50명 이하 17명, 51명 이상 5명으로 나타났고, 15억 엔 이상인 경우는 50명 이하 10명, 51명 이상 11명으로 나타났다.

<표 8> 매출액·종업원 수 분포

| 구분 | | 종업원 수 | | F(p) |
|-----|-------------|--------|--------|-------------------|
| | | 50명 이하 | 51명 이상 | |
| 매출액 | 2.25억 엔 이하 | 22 | 0 | 24.327 (0.000) |
| | 2.26억~5억 엔 | 24 | 1 | |
| | 5.01억~15억 엔 | 17 | 5 | |
| | 15.1억 엔 이상 | 10 | 11 | |

주 : * p<0.1, ** p<0.05, *** p<0.01

V. 맺음말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재일제주인을 다루는 연구 분야에서 연구주제를 확장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주제들이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1938년 이후보다 1938년 이전에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대부분은 1960년~1969년 사이에 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1970년 이후에 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대부분은 500만 엔 이하의 자

본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2.26억~5억 엔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5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재일제주인 기업가와 관련하여 경영활동에서 나타난 특성을 보면, 일본 속의 제주인 사회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직종의 다양화, 그리고 국제경제의 변화라는 틀 속에서 경제적 번영과 쇠퇴라는 커다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재일제주인의 생활, 직종, 상공업 활동이 점차적으로 변용되어 왔던 것이다. 게다가 재일제주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신발공장, 고무공장 등 제조업에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기계설비, 조선업, 관광업 등에서 일본인 회사와 경쟁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재일한상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재일한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재일제주인을 포함한 재일한인 기업가의 경영활동도 크게 다양해지고 점차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광명(2006), “일본 속의 제주인의 직종과 상공업 활동”, 『아시아연구』 제9(2)호, 한국아시아학회.
- 고광명·진관훈(2006),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社會科學研究』 제14(1)집, 西江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 金泰永(2005), “재일한국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특성과 기업가정신”, 『日本文化學報』 제27집, 韓國日本文化學會.
- 신행철(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島研究』 제14집, 濟州學會.
- 신행철(2004),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학교출판부.
- 양성중(2005), “在日 濟州人 研究의 現況”,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 외 발표 자료집.
- 尹健次(2002),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인진(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임영언(2006), 『재일코리안 기업가』, 한국학술정보.
- 임채완·임영언·최석신·나주몽(2007),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북코리아.
- 제주발전연구원(2000), 『100만 제주인의 사회적 통합증진과 역량 극대화 방안 연구』.
- 최석신·임채완·백형엽·조성도·이석인(2005), 『재일코리안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 濟州魂：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나라출판.
- 姜 誠(1996), 『5グラムの攻防戦—ハチンコ30兆円産業の光と影』, 集英社.
- 姜 誠(2000), “在日韓國人とハチンコ産業”, 『韓商連四十年史』, 在日韓國商工會議所.
- 高鮮徽(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關東地方を中心に』, 新幹社.
- 高鮮徽(1998), 『20世紀の滯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明石書店.
- 共同新聞社(1989), 『在日韓國人實業名鑑』.
- 金美德(2002), “日本のベンチャー企業と在日コリアン企業の比較研究”, 『同胞經濟研究』, 第5号(夏),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
- 李光奎(1982),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實態』, 東京韓國青年商工會.
- 林永彦(2004), 『韓國人企業家』, 長崎出版.
- 朴健市(2002), “燒肉産業と在日同胞”, 『韓商連四十年史』, 在日韓國商工會議所.
- 朴健市(2002), “朝鮮料理産業を中心とした外食産業の動向”, 『同胞經濟研究』, 第4号(春),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
- 朴一(2002), 『在日コリアンの經濟事情』, 第11卷.
- 徐龍達(1982),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實態について』, 東京韓國青年商工會.
- 徐龍達(1989),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實態』, 青商連合會.
- 徐龍達編(1987), 『韓國・朝鮮人の現状と將來』, 社會評論社.
- 吳圭祥(1992), 『在日朝鮮人企業活動形成史』, 雄山閣.
- 吳民學(1992), “在日朝鮮人の就業狀況の変化と同胞企業の經營狀態について—國稅調査, 同胞企業短觀の經濟データを中心に”, 『人權と生活』 No.17, 在日本朝鮮人人權協會發行.
- 吳民學・金哲秀(1996), “統計に見る在日朝鮮商工人數に關する研究”, 『同胞經濟研究』 第6号, 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
- 外村 大(2004),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形成・構造・変容』, 綠蔭書房.
- 外村俊幸(2003), 『在日韓國人の經濟的地位と役割』, 國際經濟研究所.
- 入管協會(2007), 『在留外國人統計』.
- 池東旭(2002), 『コリアンジャパニーズ』, 角川書店.
- 奥田道大(1993), 『都市と地域の文脈を求めて—21世紀システムとしての都市社會學』, 有信堂
高文社.
- 河明生(2003), 『マイノリティの起業家精神：在日韓人事例研究』, ITA.
- 辺眞一(2000), 『強者としての在日』, ザ・マサダ.

<부록 1> 제일제주인 기업가의 이력서

(단위 : 만, 억, 엔, 명)

| 번호 | 기업가 | 출생년도 | 출신지역 | 학력 | 업종 | 설립년도 | 자본금 | 매출액 | 종업원 수 |
|----|-----|------|------|----|-------|------|-------|------|-------|
| 1 | 강덕찬 | 1942 | 서귀포 | 고졸 | C | 1985 | 500 | 1 | 13 |
| 2 | 강문남 | 1956 | 구좌 | | C-D | 1955 | 2350 | 30 | 100 |
| 3 | 강성총 | 1926 | 서귀포 | | C | 1950 | 1000 | 2.5 | 10 |
| 4 | 강수룡 | 1936 | 서귀포 | | I | 1969 | 2000 | 1.2 | 25 |
| 5 | 강우성 | 1950 | 서귀포 | 대졸 | C | 1949 | 3200 | 15 | 80 |
| 6 | 강용언 | 1954 | 세화 | | C | 1955 | 8100 | 150 | 300 |
| 7 | 강중일 | 1928 | 서귀포 | 대졸 | C | 1972 | 1200 | 1.1 | 11 |
| 8 | 강창길 | 1952 | 성산 | | C | 1975 | 2000 | 3 | 40 |
| 9 | 강충남 | 1926 | 남제주 | 대졸 | C | 1955 | 8100 | 150 | 300 |
| 10 | 강태수 | 1929 | 제주시 | 고졸 | D | 1962 | 500 | 8 | 25 |
| 11 | 강해삼 | 1943 | 표선 | | C | 1940 | 6000 | 12 | 15 |
| 12 | 강홍기 | 1928 | 서귀포 | | C | 1970 | 2000 | 5 | 20 |
| 13 | 강길용 | 1935 | 북제주 | 고졸 | I | 1974 | 300 | 1.5 | 5 |
| 14 | 강성범 | 1937 | 중문 | | C | 1948 | 10000 | 65.9 | 110 |
| 15 | 강재도 | 1939 | 서귀포 | 대졸 | I | 1971 | 1100 | 1 | 11 |
| 16 | 강중하 | 1940 | 한림 | | C | 1968 | 1000 | 5 | 11 |
| 17 | 강철희 | 1943 | 애월 | 고졸 | G | 1979 | 500 | 14 | 18 |
| 18 | 고기수 | 1934 | 구좌 | 대졸 | E | 1982 | 3000 | 15 | 70 |
| 19 | 고산수 | 1936 | 표선 | | G | 1973 | 200 | 10 | 8 |
| 20 | 고신부 | 1947 | 제주시 | 고졸 | C | 1975 | 100 | 1.8 | 15 |
| 21 | 고익중 | 1922 | 애월 | | C | 1968 | 300 | 0.9 | 10 |
| 22 | 고진수 | 1931 | 성산 | | C | 1947 | 2000 | 15 | 22 |
| 23 | 고창조 | 1933 | 광령 | 고졸 | C | 1969 | 4000 | 30 | 150 |
| 24 | 고춘근 | 1932 | 제주시 | | D-G-H | 1966 | 2000 | 20 | 10 |
| 25 | 고춘학 | 1931 | 제주시 | | C | 1951 | 400 | 0.6 | 8 |
| 26 | 고행수 | 1933 | 한림 | | C | 1961 | 500 | 1 | 5 |
| 27 | 김경욱 | 1922 | 구좌 | 고졸 | I | 1971 | 200 | 1.8 | 20 |
| 28 | 김경희 | 1940 | 구좌 | 고졸 | C | 1969 | 500 | 3.5 | 86 |
| 29 | 김달효 | 1925 | 성산 | | H | 1967 | 1800 | 4.7 | 48 |
| 30 | 김두화 | 1920 | 제주시 | 고졸 | D | 1950 | 2000 | 1.8 | 7 |
| 31 | 김문봉 | 1953 | 조천 | | C | 1966 | 200 | 0.8 | 7 |
| 32 | 김민영 | 1945 | 제주시 | 고졸 | C | 1964 | 500 | 0.78 | 11 |
| 33 | 김방언 | 1944 | 구좌 | | I | 1971 | 200 | 1.8 | 20 |
| 34 | 김상수 | 1920 | 제주시 | 고졸 | C | 1963 | 2400 | 14.9 | 23 |
| 35 | 김성대 | 1940 | 제주시 | 대졸 | D | 1976 | 500 | 45 | 12 |
| 36 | 김성수 | 1938 | 구좌 | 고졸 | G | 1970 | 250 | 24 | 4 |
| 37 | 김수옥 | 1942 | 제주시 | 고졸 | C | 1970 | 500 | 0.6 | 9 |
| 38 | 김수환 | 1942 | 서귀포 | 대졸 | C | 1957 | 1900 | 25 | 37 |
| 39 | 김순기 | 1931 | 제주시 | 고졸 | C | 1968 | 1000 | 3.5 | 21 |
| 40 | 김양삼 | 1945 | 제주시 | 대졸 | H | 1978 | 500 | 3.9 | 28 |
| 41 | 김양웅 | 1945 | 제주시 | 대졸 | G | 1971 | 4800 | 30 | 8 |
| 42 | 김영행 | 1956 | 제주시 | 고졸 | C | 1980 | 1000 | 0.25 | 2 |
| 43 | 김정배 | 1923 | 한림 | 고졸 | G | 1980 | 1000 | 2.3 | 7 |
| 44 | 김정순 | 1932 | 표선 | | C | 1966 | 500 | 5 | 8 |

| | | | | | | | | | |
|----|-----|------|-----|----|-----|------|--------|---------|-----|
| 45 | 김철삼 | 1944 | 제주시 | 고졸 | D | 1969 | 1000 | 4.5 | 8 |
| 46 | 김치영 | 1948 | 표선 | 고졸 | C | 1963 | 1000 | 2.5 | 10 |
| 47 | 박기동 | 1954 | 제주시 | 대졸 | C | 1967 | 1000 | 7 | 25 |
| 48 | 박동식 | 1924 | 애월 | 고졸 | F | 1981 | 200 | 1 | 9 |
| 49 | 박동진 | 1930 | 서귀포 | 대졸 | C | 1959 | 3500 | 21.6 | 120 |
| 50 | 박성구 | 1933 | 제주시 | 대졸 | B | 1966 | 1000 | 5.5 | 38 |
| 51 | 박재춘 | 1921 | 구좌 | | G | 1961 | 1000 | 6.2 | 70 |
| 52 | 박정희 | 1945 | 제주시 | 대졸 | C | 1967 | 4500 | 34 | 122 |
| 53 | 백국형 | 1933 | 제주시 | 고졸 | C | 1986 | 2000 | 12.3 | 36 |
| 54 | 소경치 | 1945 | 조천 | 고졸 | E | 1978 | 500 | 4 | 7 |
| 55 | 송용택 | 1952 | 남제주 | 대졸 | G | 1965 | 2000 | 5 | 7 |
| 56 | 안부송 | 1944 | 애월 | 대졸 | C | 1972 | 700 | 7 | 35 |
| 57 | 양두경 | 1938 | 한림 | 고졸 | C-I | 1921 | 500 | 35 | 70 |
| 58 | 양창수 | 1922 | 조천 | 고졸 | C | 1947 | 1000 | 3 | 35 |
| 59 | 양태행 | 1949 | 조천 | 대졸 | C | 1967 | 200 | 3 | 16 |
| 60 | 오두경 | 1931 | 구좌 | 대졸 | C | 1949 | 3000 | 8 | 29 |
| 61 | 오문필 | 1930 | 한림 | 대졸 | D | 1964 | 3500 | 100 | 25 |
| 62 | 오영수 | 1954 | 제주시 | 대졸 | D | 1954 | 1600 | 27 | 32 |
| 63 | 오진성 | 1928 | 제주시 | 대졸 | D | 1954 | 1600 | 27 | 32 |
| 64 | 오태용 | 1928 | 구좌 | | C | 1958 | 4000 | 15 | 80 |
| 65 | 윤창의 | 1944 | 한림 | | G | 1976 | 500 | 10 | 5 |
| 66 | 이근배 | 1932 | 조천 | 대졸 | D-H | 1961 | 600 | 2.1 | 3 |
| 67 | 이동백 | 1923 | 조천 | | E | 1979 | 3000 | 2 | 35 |
| 68 | 이순방 | 1927 | 안덕 | | B | 1963 | 500 | 0.8 | 16 |
| 69 | 이순안 | 1939 | 대정 | 대졸 | G-I | 1953 | 2000 | 103 | 110 |
| 70 | 이원주 | 1950 | 구좌 | 고졸 | C | 1983 | 500 | 5 | 10 |
| 71 | 이정림 | 1940 | 제주시 | 대졸 | F | 1955 | 408900 | 5046.63 | 770 |
| 72 | 이정하 | 1916 | 서귀포 | | C | 1988 | 1000 | 9 | 15 |
| 73 | 이종훈 | 1923 | 제주시 | | E | 1964 | 1500 | 0.065 | 4 |
| 74 | 이태훈 | 1923 | 제주시 | | C | 1983 | 400 | 3 | 25 |
| 75 | 이평년 | 1917 | 중문 | | C | 1955 | 100 | 3 | 15 |
| 76 | 임영찬 | 1932 | 구좌 | 고졸 | C | 1972 | 2000 | 15 | 100 |
| 77 | 임충량 | 1941 | 한경 | 대졸 | D | 1973 | 150 | 26 | 7 |
| 78 | 임태련 | 1925 | 대정 | 고졸 | C | 1953 | 2000 | 5 | 22 |
| 79 | 임행범 | 1955 | 대정 | 대졸 | C | 1953 | 2000 | 5 | 22 |
| 80 | 조태화 | 1932 | 한림 | 고졸 | D | 1965 | 200 | 6.5 | 11 |
| 81 | 차재철 | 1952 | 한림 | 고졸 | I | 1981 | 800 | 5 | 11 |
| 82 | 최방원 | 1954 | 한경 | 고졸 | C | 1981 | 1000 | 3 | 12 |
| 83 | 한건상 | 1941 | 한림 | 고졸 | I | 1984 | 500 | 18 | 23 |
| 84 | 한동구 | 1926 | 한림 | 고졸 | I-G | 1960 | 1000 | 5 | 7 |
| 85 | 한유택 | 1944 | 구좌 | | C | 1976 | 1000 | 8 | 35 |
| 86 | 현영하 | 1936 | 제주시 | 대졸 | C | 1982 | 1000 | 5.4 | 25 |
| 87 | 현재옥 | 1923 | 서귀포 | 중졸 | C | 1958 | 1000 | 4 | 16 |
| 88 | 강영남 | 1943 | 구좌 | 고졸 | I | 1979 | 500 | 1 | 7 |
| 89 | 김병중 | 1937 | 제주시 | 대졸 | F | 1956 | 86646 | 604 | 130 |
| 90 | 오남흥 | 1936 | 남원 | 고졸 | C | 1967 | 3000 | 8.2 | 11 |

주 : A(농림·수산·광업), B(건설), C(제조), D(상사·도매), E(소매·판매), F(금융·증권·보험), G(부동산), H(운수), I(정보서비스)

자료 : 共同新聞社(1989), 『在日韓國人實業名鑑』.

<부록 2> 제일제 주인 기업가의 법인회사 소득신고 순위(1992년 기준)

| 順位 | 會社名 | 代表者(出身地) | 順位 | 會社名 | 代表者(出身地) |
|----|-----------|----------|----|------------|----------|
| 1 | 天馬(東京) | 金鳳根(濟州市) | 16 | ABC觀光(大阪) | 梁熙晉(南元邑) |
| 2 | 富士電線(大阪) | 康忠男(表善面) | 17 | 近畿自動車教(大阪) | 金奉逸(朝天邑) |
| 3 | 平和産業(神戸) | 姜順贊(翰林邑) | 18 | 大德企業(大阪) | 李林根(大靜邑) |
| 4 | 大邦興業(大阪) | 李鼎根(大靜邑) | 19 | 그랜드觀光(大阪) | 梁熙晉(南元邑) |
| 5 | 星田골프(大阪) | 金致富(濟州市) | 20 | 共和紙料(大阪) | 金永孝(南元邑) |
| 6 | 富士電販(大阪) | 康忠男(表善面) | 21 | 松岡단추(大阪) | 李寬珩(翰京面) |
| 7 | 平和고무(神戸) | 姜順贊(翰林邑) | 22 | 第一觀光(東京) | 梁熙晉(南元邑) |
| 8 | 盛宏(大阪) | 安仁淳(濟州市) | 23 | 愛三産業(東京) | 白昌鎬(濟州市) |
| 9 | 光住建(大阪) | 姜哲熙(涯月邑) | 24 | 眞田化工(大阪) | 愼在孝(濟州市) |
| 10 | 共榮産業(大阪) | 李純安(大靜邑) | 25 | 丸和(大阪) | 吳文弼(翰林邑) |
| 11 | 金海商事(東京) | 金坪珍(濟州市) | 26 | 大信(大阪) | 韓長淑(朝天邑) |
| 12 | 南海會館(大阪) | 金呂仁(翰林邑) | 27 | 新井고무(大阪) | 朴達炯(濟州市) |
| 13 | 朝日사이렌(大阪) | 康贊旭(翰林邑) | 28 | 東洋産業(大阪) | 朴東烈(西歸浦) |
| 14 | 藤田土地(大阪) | 金良雄(濟州市) | 29 | 呂慶苑(大阪) | 金其彦(旧左邑) |
| 15 | 日本有機(大阪) | 安在祐(表善面) | 30 | 第一化成(大阪) | 金富雄(濟州市) |

자료 : 在日本濟州道民會(1993), 「日本の濟州魂 : 在日本濟州道民會30年史」, 나라출판.